지역 소식통

고창군-전북테크노파크 상호협력·상생발전 협약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지난 20일 고창군청에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의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신기술 창업의 촉진과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식기반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전북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육성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보안면, "내년은 고려청자의 본향 디자인"

부안군 보안면은 올해 사적 지정 60주년을 맞아 '고려청자의 본향, 보안면'이라는 주제로 면 전체를 고려청자로 디자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1938년 일본인에 의해 보안면 유천리 일대에 있는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이 가마터는 고려중기 청자의 최전성기를 이끈 도요지로 제작기법 및 그릇의 종류, 문양 등이 다양하고 뛰어나 고려왕실과 귀족들에게 진상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중요한 사적지이다.

이곳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비롭고 유려한 고려청자들이 탄생하였지만 보안면 관내에서는 청자박물관을 제외하고 고려청자의 본향으로서 구축된 이미지가 부족하여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많지 않아 그간 아쉬움을 자아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년 예산 8115억원 편성

고창군, 전년대비 5.43% 증가… 8대 전략예산에 초점 맞춰

전북 고창군이 8115억원 규모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99억원(5.28%) 증가한 7946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2.5%) 증가한 169억원으로 내년도 고창군 총 살림규모는 418억원(5.43%) 늘어난 8115억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370억원(4.6%), 세외수입 381억원(4.8%), 지방교부세 3,359억원(42.3%), 조정교부금 166억원(2.1%), 국·도비 보조금 3,214억원(40.5%) 등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60억원(8.8%)이 증가한 3214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고창군 5대 전략사업예산 △활력넘치는 읍면 소재지로 탈바꿈, 농촌생활권 정비예산 △청년층 고소득 선도모델 육성, 청년 지원예산 △미래 100년을 이끌 고창형 교육예산 △재해로부터 안전한 피해제로(Zero) 재난대응예산 △고루 잘사는 농어촌, 농림해양수산예산 △아름다운 동행, 맞춤형 복지예산 △세계유산 관광도시 자리매김, 관광예산, 8대 집중 전략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먼저, 고창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5대 전략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39억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종합테마파크 조성 37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28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15억원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39억원 등이다.

또한, 총사업비 589억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본격추진으로 읍면소재지가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된다.

첫해 주요 사업으로는 △고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0억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원 △성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원 등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고소득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156억의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주요사업은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조성 92억원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 4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9억원 △청년 가업승계 지원 1억원 등 19개사업 15억원도 편성해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미래 100년을 이끌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고창형모델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등록금 지원 8억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한옥건축학과 지원 8억원 △글로벌인재 육성지원 3억원 등 총 59억원의 미래인재 준비예산도 더해졌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예산 56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4억원 △고창읍 등 4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82억원 △고창천 등 5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31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7억원 △반룡소하천 등 5개소 정비사업 33억원 등이다.

특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5억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대산지구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되어 농번기 물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총 1919억원을 투입해 △고창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율 상향 29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478억원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40억원 등을 지원한다. 고창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금조성액(5억원)도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보훈사업도 꼼꼼히 챙겨 총 1826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647억원 △생계급여 158억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0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28억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의원이 없는 상하면에 보건지소 신축예산으로 14억원이 편성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포 김구와 부안 도동서원의 한국유학사적 위상 조명

제13회 문정공 지포 김구 학술대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사단법인 호남고전문화연구원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지포 김구와 부안 도동서원의 한국유학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호남고전문화연구원(이사장 김기현)이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 말에 새로운 철학으로써의 성리학이 고려에 유입되도록 직·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한 지포 김구 선생과 그의 두 아들이 남긴 업적이 한국유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조명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도동서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실학학회 회장을 역임한 윤재민 교수의 '조선 성리학과 반계 실학의 의의'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모두 5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기조발표에 이어, △지포 김구 한시(漢詩)전집(全集)정본화(定本化)와 전주(箋註) 전석(全釋)(문혜정, 전북대), △김구의 4자 김승인(金承印)이 중건한 강릉향교의 한국 유학사적 위상(박도식, 강릉원주대), △주세붕(周世鵬)의 안향(安珦) 숭모(崇慕)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창건에 비춰본 부안(扶安)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의의(김병기, 전북대), △지포김구와 원대 초기 유학계의 상황(이원석, 전남대), △지포 김구 선생 후손의 중요 금석문 연구(김진돈,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 등의 학술 논문이 발표된다.

이후 이의강 원광대 한문교육과 교수를 좌장으로 장춘석(전남대), 최기순(강릉향교 전교),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윤용혁(공주대), 조수현(원광대) 등 지역 연구자·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김구 선생이 남겨주신 학문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더 나아가 도동서원이 한국 유학사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서 그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제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겨울철 제설 대책 사전대비 '총력'

정읍시, 지난 17~18일 첫눈 제설작업 성공적 초동대처 평가

정읍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제설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7일 저녁부터 18일 오전까지 정읍지역에 첫눈이 내린 가운데 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고갯길 구절재 등 9개소 37km와 충정로 등 15개 구간 주요도로에 발빠른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해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을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역 내 63개노선 408km 구간의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도록 모래살포기를 장착한 15톤 덤프 12대 등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950톤, 소금 1860톤, 모래 5만개 등 제설 자재를 사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에는 읍·면·동 설해대책 담당자와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제설교육을 실시하고 도로 제설작업 시 대응절차와 신속한 대처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제설작업의 체계적인 시스템화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기상 상황별?단계별에 따라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다.

특히, 읍·면·동 지역의 마을진입로와 마을간 연결도로는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활용하고, 제설봉사단을 구성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설 취약지구인 칠보 구절재와 내장 방산재, 신태인읍 등에는 제설 전지기지를 지정해 염수 저장탱크에 염수 용액을 배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영농법인, 농업인의 날 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정부 포상 식량산업분야에 정읍시 소재 2개 우수법인이 각각 대통령 포상과 국무총리 포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대통령 포상에는 녹두한우 영농조합법인(대표 오병오)이, 국무총리 포상에는 하이마블 영농조합법인(대표 정왕용)이 선정됐다.

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21일 정읍시청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해 쌀 적정 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를 권장 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포상을 받은 법인들은 공동경작과 위탁영농으로 논콩 재배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포상을 받은 녹두한우는 이평면을 기반으로 28농가가 83.4ha의 논콩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 포상금 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하이마블은 정우면을 중심으로 21농가가 68.3ha의 논에 논콩과 조사료를 공동 경작해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식량안보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법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